

“에…………”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사람을 경계하면서 의심을 많아지는 성격을 가졌던

올라가서 짐들을 대충 챙기고, 작은 노트에 건강 세미나 순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올라와서 세면을 하는 동안 방을 정리하고 커피 두 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목사님에게 커피 한잔 권하고 세미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것으로 기억 합니다.

“이정도 되었나요?” 당뇨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가슴이 상치면 반을 있는데, “에…” 저것이 100%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만……>

“ 좋습니다.” 이영숙씨는 세미나하는 동안 제 앞에서 저런 불신의 표정으로 무기력하게 앉아 “뭘 사님 청도에 10년 성당이 맞아요?” 두 시간 동안 내뿜어 뱉었습니다. 이 분에게 세미나 체류한 “아니요… 모르는데요 행사 관련이 스포츠레처먼트였지요……. 앞에 세야 하는데…” “그러면 약속 시간까지 4시간 남아있으니 독일 사람들이 만든 성당에 가서 구경하고 약속장소로 들어가지요. 청량강 성당 내에 서히 걸립니다.” 가깝지 않은 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 선생님 청도 잘하세요? 처음 올면서 한편으로 여성분들이 있는 곳 한편을 보면 목사님이 “그냥 여행 동행입니다.” 여행하러 여행객들 같구 생각하면 산타가 왔음 왔지 회여졌던

우리들은 독일 사람이 만든 성당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위한 기도와 조선(중국), 고려(러시아) 한반도에 민족에 대해 공동의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2013년 여행 기억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 때도 파괴 하지 않은 성당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상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조국에 감사 드리고 약속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청량 시에 들어가서 한참 후 지정된 식당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각자 삶의 터로 돌아가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 50명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은 저와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불안했던 가정들이 이 때 인연이 된 분이 이영숙씨 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해서 중국에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2013년에는 당뇨로 고생하는 그 분에게 처방전을 주었던